

## 다산포럼

## 여기자의 황홀한 '삼국지'

조상호  
(주)나남출판 대표이사

삼국지를 다시 펴든다. 중앙일보 양선희 논설위원이 편작(編作)한 '여류(余流) 삼국지' 전 5권을 삼복더위의 대형마로 삼아 단숨에 읽어냈다. 자꾸 왜소화하고 메말라가는 두뇌에 고전 다시 읽기의 폭풍희열을 선사한 저자에게 박수를 보낸다. 공명을 다루는 조작 내 인간의 삶과 처세를 2천 년 전의 삼국지 스토리에 얹어 지금 여기의 시대정신에 맞춘 공들이 보기 드문 역작이다. 작가의 현란한 언어의 마술은 시공간을 넘나들며 통통 뛰는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많은 상상력의 꿈을 꾸게 한다. 이렇게 우리의 절난 상식을 부끄럽게 하는 글쓰기의 조그마한 비鄙에도 우리는 유쾌한 배반의 눈에서 행

복한 유영을 할 수 있다.

오랜만에 다시 읽은 '삼국지'는 포커레이스의 달인인 물락한 집안 자손 23세 현덕, 그 원천을 알 수 없는 자부심과 자존심으로 떨뜰 둥친 외로운 도망자 청년 관우, 딜릴질에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고아 소년 16세 장비, 이 세 청년이 도원결의하여 천하를 도모하는 전장터를 누비는 40년간의 꿈이야기(夢)에 다름 아니다.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면서도 세상에 굴종하지도 못하는 강한 성정을 타고난 불우한 청년들에게 유일한 아방은 기준의 질서와 상관없는 자신들의 세상을 만드는 것 이리라.

사교와 인맥으로 세를 형성하는 중앙 엘리트들은 타고난 집안 배경을 바탕으로 우아한 예의범절과 풍류로 자신의 영역을 더욱 넓힐 수 있으나, 변방에서 온 마이너리티들에게는 몸을 사리지 않는 저돌성과 권력자들에 대해 몸을 던지는 아부의 기술이며 통통 뛰는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많은 상상력의 꿈을 꾸게 한다. 이렇게 우리의 절난 상식을 부끄럽게 하는 글쓰기의 조그마한 비鄙에도 우리는 유쾌한 배반의 눈에서 행

것은 하나도 뺏기지 않고, 빼앗은 자에겐 반드시 보복한다. 그리하여 자신에게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날을 세워야 비로소 한 단계 씩 올라갈 수 있다. 해서 도움이 될 자와 아닌 자들을 가려내는 동물적 감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 삶의 비책이다.